

어느 '나무백정'의 참회 먼 훗날 독자가 읽어줄 '추도사'를 기대하며

이강욱 |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내 연구실 서가에는 책을 꽂을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책들은 책상과 탁자 위 그리고 방바닥에 쌓여 있다. 이제 몸을 크게 움직이기도 어렵다. 들락거리다 책에 몸이 닿으면 책은 무너져 내린다.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은 책상과 탁자 위에 널려 있던 종이를 날리기도 한다. 종이는 다시 제자리를 잡아 땡구는가 하면 복도로 미끄러져 나가거나, 창문 밖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연구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책과 종이 때문에 연구실 생활이 매우 불편해졌다 판단하는 날, 나는 큰 맘 먹고 대청소를 시작한다. 먼저 서가에 꽂힌 책들 중 손이 자주 가지 않거나 다시 읽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책들을 빼내 서가 위에 쌓는다. 그리고 잡다한 문건들을 슈아낸다. 이렇게 확보된 서가의 좁은 공간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책들을 꽂는다. 연구실은 그럭저럭 정돈이 된다.

이제부터 연구실의 질서를 잃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잠시 빼내본 책, 방금 배달된 책,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 갖가지 광고전단들... 이런 것들을 경계한다. 한편의 책, 한장의 종이부터 잘 처리해야 한다. 대강 훑어 본 즉시 그것들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하고 꽂거나 버린다. 그러면 얼마간은 질서가 유지된다. 책과

종이들은 나를 향해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책과 종이에 대한 '완전 평정'의 시간은 짧다. 일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꼬이기 시작한다. 새로 들어온 어떤 책은 서가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기가 힘들고, 또 어떤 책은 좀더 가까이 두고 한동안 읽어야 할 것이다. 어떤 종이는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려운 서류고, 어떤 봉투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기엔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엄격한 통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책과 종이 생기기 시작한다. 한편의 책, 한장의 종이 특별하게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이 반전의 시작이다. 두권째부터는 더 자연스레 슬며시 책상 위에 놓인다. 이렇게 책과 종이는 쌓이기 시작한다. 가속도가 붙는다. 책과 종이들이 포위망을 좁힌다. 그들을 선별해 서가에 꽂거나 서랍 속에 넣던 나는 마침내 투지를 잃고 눈을 감는다. 온 연구실이 다시 책과 종으로 뒤덮인다. 나는 그들에 의해 완전 포위됐다. 조금씩 압박해오는 그들을 팔꿈치로 밀어제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때면 으레 대학시절 자취를 하던 판자집 방이 떠오른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책들을 흠뻑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쌓아 놓았다. 그런데 그 책들은 내

행동이 조금이라도 방만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었다. 책이 더 쌓이면서 '아, 나는 자다가 저 책들에 깔려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월이 지나 교수가 된 나는 그 자취방의 책들을 고스란히 연구실로 옮겨 왔고,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을 더 구입했다. 그러니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천장에까지 닿아 있는 책들의 무게가 만만찮을 것이다.

어느날 서가 꼭대기에서 무너져 내리던 책들에 내가 깔릴 뻔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 무더기를 피했지만 무더기에서 이탈한 책이 내 머리통을 가격했다. 그리고 얼마 뒤 책상위에 널려 있던 A4 용지의 날카로운 귀퉁이에 손가락을 베어 선홍의 피를 봤다. 책더미에 깔려, 날카로운 종잇날에 잘려 치명적 상처도 입으리라는 망상이 생겼다. 그 사건은 내 일상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내 삶의 본질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교수인 나는 스스로 많은 책을 읽고 남들에게 책을 읽게 만들기에, 종이를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종이를 소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 종이가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종이를 소비하는 행위는 엄연한 생명체인 나무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할진대, 과연 나는 그 나무의 희생에 대해 몇몇할 수 있는가? 종이를 만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을 써서 흡족해하는 것은 소나 돼지를 죽여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 그 욕망의 본질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학문을 연구해 글을 쓰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고상한 행위라 했다. 학자의 일생이야말로 세속의 욕심에 초연한, 청렴하고 숭고한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 한때 그런 부추김에 우쭐대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부추김이 수상쩍게 여겨질 때가 많다. 나는 욕심에서 해방됐는가? 나 자신의 글이 과연 어떤 살아있는 의미를 지녀 동시대 사람들에게라도 도움을 주는 것일까?

이런 회의는 나를 더욱 깊은 망상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망상 속에서 나는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남으려 몸을 뒤트는 나무들을 향해 잔인하게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제재소나 복사점 앞을 지나갈 때면 푸줏간의 피비린내를 맡으며 묘한 희열을 느끼는 '나무백정'이었다. 나는 언젠가 그 많은 나무들에게 보복을 당하리라.

당혹감을 느끼며 그래도 종이의 낭비와 나무의 희생을 줄이는 길을 찾아 봤다. 꼭 필요하지 않는 책은 사지 않는다. 이면지를 활용한다. 교재는 만들어 쓴다. 이면지를 사용한 리포트만 받는다. 그러나 꼭 필요한 책은 늘어만 갔고 이면지는 활용해도 줄어들지 않았다. 교재를 만들 때마다 페이지수는 늘어났고 계산착오로 매번 여분이 생겼다. 평소 이면지를 보관해두지 못한 학생들은 새 종이의 한 면에 일부러 낙서를 하거나 프린터를 한 다음 그 이면에다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다. 마침내 나는 내가 학자와 교수로서 살아가는 한, 나무를 죽이고 종이를 과소비하는 일을 조장할 수밖에 없음을 통절히 깨닫게 됐다. 그리고는 연구실에 가득찬 책과 종이, 그 나무시신의 잔해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타성에 따라 계속 책을 사 모으고 논문을 작성해 인쇄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리포트를 받았다. 세상을 따라잡아야 한다면, 증명된 신문을 두 종류나 받아 봤다. '교수'라는 꼬리가 붙은 나의 이름은 경향 각지의 학술단체, 시민단체, 출판사, 심지어 주택회사, 술집

까지 유혹해 홍보물, 소식지, 사보 등을 인쇄해 부치게 했다.

요즘은 더하다.

"이교수? 어, 내다. 27회. 우리 동기를 서울에서 자주 만난다. 가끔 너 이야기도 한다."

고등학교 동기임을 자처한 그 사람은 어느새 내 절친한 친구가 돼 있었다. 곧 잡지들이 발행부수를 공개하게 되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잡지사의 잡지를 일년간만 구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안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영겁결에 나는 내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잡지를 일년간 받아보게 됐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 《젓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돌베개)라는 내 수필집이 간행되자, 인터뷰가 시작됐다. 인터뷰 기사를 실은 신문·주간지·월간지의 영업부는 거의 예외 없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환기시키며 정기구독을 독려했다.

책이나 잡지의 출간이 경쟁적 상업주의와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현실이 나를 안타깝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모든 책들이 사적 소유의 상태에서 읽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개인의 서가에 꽂아 두어야 할 책과 그럴 필요가 없는 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책의 구분이 엄연한 현실에서 종이책이 꼭 맡아야 할 영역이 분명 있을 텐데, 그 점을 존중하면서 전자책이나 오디오책을 통해 종이의 허비를 막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내 수필집과 관련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여성주의적 시각과 단아한 문체로 잘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서평에서 격려를 받은 정도보다는, 예상과는 달리 그리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소식에 더 크게 실망하지 않았던가? 책이란 우르르 몰려든 독자들에게 팔려가 비슷한 내용의 갈채를 받기보다는, 도서관 한켠에서 우두커니 있다가 어느날 찾아온 한명의 독자와 조용히 사연을 나누는 것을 참다운 행운으로 안다고 생각하자. 긴 세월을 기다려 온 한편의 책과 마주앉은 특별한 독자는 '나무백정' 작가가 희생시킨 몇 그루 나무를 위한 추도를 잊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런 독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망연자실과 실망을 덮어야겠다. ●